

# 쌍용차지부, 정문 봉쇄하고 5일째 옥쇄파업

노동과세계 | 승인 2009.05.25 16:05

사측 '파업 동조하지 말라' 강압에도 전국 조합원 평택공장으로 속속 집결  
파업 참가자 첫날 800명에서 5일째 2,000명으로 불어나



22일 회사정문을 걸어 잠그고 사측의 2646명의 구조조정 안을 거부하는 '옥쇄투쟁'에 나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뒤로 사측이 내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믿습니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하며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들이 총파업 선포식에 참가하기 위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정문을 컨테이너 4개로 봉쇄하는 등 모든 출입문을 차단했다. 70m 도장라인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3명도 “승리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며 결사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법정관리 사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상하이차와의 단절과 실질적 경영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상하이차가 가진 과반수 주식을 소각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고 국가기간산업인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정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현재까지 사측은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태 핵심인 정리해고와 분사에 대해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관계인집회에서도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보고했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 직접적 계기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22일 열린 파업결의 대회에 참가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쌍용차지부는 이런 때일수록 전 조합원 의지를 모으자며 호소하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첫날 800명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이어 현재(25일) 2,0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 등 지역에서도 평택공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퇴직을 번복했다. 21일 저녁 7시 경 조립 3팀 의장반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자신이 쓴 희망퇴직서를 돌려달라고 한 뒤 회사 관리자들 앞에서 찢어버렸다.

그 조합원은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희망퇴직서를 쓴 것 같다, 열심히 투쟁하는 동료들과 노조에 미안하다, 희망퇴직을 반려했고 다같이 살기 위해,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싸우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회사가 너도 이미 해고명단에 있으니 희망퇴직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압하며 “당신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니 파업에 참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이미 정리해고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조합원들 단결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파업 돌입 이후 매일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육과 토론회를 열고 있다.



'원칙중시, 상호신뢰...' 총파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조가 애초 회사 정상화 타협 때 내건 조건은

이 두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카드로 구차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전에 제발 기본부터 배우시라! 그 몰염치함에까지 소리 지르기에는 우리는 너무 힘이 든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한편 쌍용자동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 결과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쌍용차 측은 “2009년 2월6일 기준 쌍용자동차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5억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9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청산할 때 가치를 초과하므로 재판장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당분간은 대규모 집회 계획을 미루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일정이 끝나는 6월부터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가 “구조조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 역시 강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23일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쌍용차 투쟁에 합류기로 했다.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은 “쌍용차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정관식 수석본부장에게 임시로 맡기고 쌍용차 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택공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는 오는 30일 평택시청 앞에서 쌍용차지부 조합원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당당히 나서서 우리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자며 현장선봉대와 실천단 모집에 나섰다.

정권과 자본 정리하고 광풍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들 절박한 총파업투쟁 뚝이 올랐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11@nodong.org